

YCC 액상제설제 국산화...수입대체 500억

(여수산업단지)

국내 유일 성능 인증 조달 우수제품 선정 살포 편하고 친환경...지자체 앞다퉀 구입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주)YCC(회장 김재곤)가 특허 개발한 '친환경 액상제설제(S.K.O·Snow Knock Out)'가 겨울철 제설작업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철구조물을 부식시키지 않고 잔디와 나무 등 식물성장에 해가 없는 친환경 제품이다. 도로관리기관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YCC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인증 성능인증과 조달청 조달우수제품에 선정된 제품으로, 자체 기술로 국산화에 성공해 연간 500억원대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YCC의 액상제설제는 강알칼리성의 염화칼슘인 일반 제설제와는 달리 중성(pH 6.5~8.5)을 띠고 있어 주변 철 구조물이 녹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물의 성장에도 피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제품이 물과 섞이면 칼슘

비료로 변하기 때문에 하천이나 논으로 흘러들어도 오염이 되지 않는다.

YCC의 연구 결과, 액상제설제를 물과 50대 50로 혼합해 잔디에 살포한 실험에서 잔디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제설제만 100% 살포한 상태에서는 12일 뒤에 90% 이상 정상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용 탱크(FRP, PE, 몰탈크, 콘크리트탱크)에 보관할 수 있어 제설창고가 필요 없고, 온·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 관리가 편하다. 품질 변화가 없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아울러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에서 수조탱크를 이용하거나 살포차로 제설 작업이 가능해 살포가 용이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기존에는 염화칼슘이 소금을 섞고 모래를 뿌리던 제설방식은 염화칼슘이나 염분이 섞인 모래를 다시 수거해야 하



제설차량이 담양 국도에서 친환경 액상제설제(S·K·O)를 살포해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제설 속도가 기존 제품보다 2~3배가 빨라 제설작업시 초기 대응에 효과적이다. 100% 국산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품공급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이같은 우수성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전남도로관리사업소, 무안군, 함평군, 제주시, 강원 횡성군 등 지자체와 도로관리 기관으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YCC는 올해 매출을 지난해보다 3~5배 증가한 30억~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조순걸 사장은 "제품을 살포하면 1~2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제설력이 뛰어나다"며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조달우수제품과 성능인증을 획득해 품질을 믿을 수 있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호남석화+케이피케미칼 '롯데케미칼' 출범



여수국가산업단지 호남석유화학이 케이피케미칼과 합병, '롯데케미칼'로 거듭났다. 여수석유화학 여수공장은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롯데케미칼 합병 및 CI 선포식'을 열고 롯데케미칼로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6년 설립된 호남석유화학은 지난해 17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꾸준한 성장세 기록하며, 롯데그룹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지난 8월 호남석유화학과 케이피케미칼은 합병을 결의한 뒤 이사회·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합병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이번 케이피케미칼과의 통합은 그룹 차원에서 중화학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라며 "사명 변경은 2018년 아시아 토플10 글로벌 그룹 달성과 아시아 최고 화학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11월 은행대출 연체 소폭 하락

전달보다 0.05% ↓

올해 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1.30%로 한 달 전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밝혔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64%에서 1.56%로 내렸다. 대기업대출이 1.25%에서 1.19%로, 중소기업대출이 1.77%에서 1.69%로 각각 연체율이 떨어졌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1.01%에서 0.

98%로 낮아졌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94%에서 0.89%로 내렸다. 신용대출 등은 1.15%에서 1.17%로 조금 올랐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권창우 팀장은 "신규 연체가 줄고 은행들이 기존 연체 채권을 많이 정리해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은행권 대출은 2조4천억원이 새로 연체됐다. 신규 연체 발생 규모는 10월보다 8000억원 줄었다.

은행들이 매각이나 상각 등으로 정리한 연체 채권은 2조9000억원으로

10월보다 1조6000억원 늘었다.

원화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천113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8000억원 늘었다. 부문별 잔액은 대기업대출 161조8000억원(1조2000억원 증가), 중소기업대출 468조7000억원(2조원 증가), 가계대출 459조5000억원(1조2000억원 증가) 등이다.

주택담보대출은 309조9000억원으로 1000억원 줄었지만,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은행이 받아 주택금융공사로 넘긴 모기지론은 4조원으로 1조3000억원 늘었다.

연협뉴스

5천987개로 21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11월 신설 법인 수의 증가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년 동월과 비교해 서비스업은 10.8%, 제조업은 10.4%, 건설업은 1.7% 증가했다.

자본금 규모별로는 1억~5억원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증가했다. 특히 1억 원 이하에서는 신설 법인 수가 19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협뉴스

올 신설 법인 6만8378개

2000년 이후 최대치

올해 1~11월 누계 신설 법인 수가 이 부문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7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11월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신설 법인 수는 6만8천378개로 전년 동기 5만8천465개보다 17.0% 증가했다. 지난달 새로 설립된 법인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0.2% 증가한

법정관리 기아차, 현대로 낙찰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35>

아시아자동차공장 유치운동 ①

DJ정부, 업계 빅딜 움직임 제동...전격 매각

▲전문가 "기아차 회생이 최선책" 청와대는 기아차 부도유예협약이 만료되기 사흘 전인 1997년 9월 18일에야 회생대책을 논의했으나 1997년 10월 22일 끝내 기아차를 법정관리로 내 몰았다.

당시 전문가들은 부도사태가 물고 울 한국경제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우려하고 기아의 회생이 국가의 경제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지적했다. 1998년 4월 22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기아자동차에 대한 한국신용정보의 실사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은행 채권의 출자 전환 없이 기아차가 계열사의 상호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를 떠안을 경우 2004년부터 흑자 기조로 전환되고, 산업은행이 채권을 출자로 전환할 경우 2002년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적정부채상환조건의 보장과 적정시점에 증자 및 출자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재무안정성이 개선되어 경쟁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부도처리, 끝내 법정관리로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나 시민단체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법정관리로 넘어가자 시중에서는 삼성 기아차 인수 시나리오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들 했다. 삼성의 기아차 인수시도는 승승장구 하는 듯 했으나 인수전이 본격화 되자 만만치 않은 장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부진했던 기아차 매각절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1998년 3월 22일 현대그룹이 전격 기아차 인수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미국 포드사와 내밀하게 기아차 인수를 추진해 오던 삼성으로서는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현대는 5.97%의 기아차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호지분을 합치면 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따라서 만일 현대가 기아차를 인수할 경우 대우

차와 더불어 국내 빅2 체제를 이루게 될 뿐 아니라 생산 규모가 연간 250만대에 이르게 되어 세계 10대 메이커로 도약하게 될 것이며 후발 삼성은 군소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둬들인 유찰 끝에 현대에 낙찰 이로써 삼성과 현대의 자존심 싸움이 본격화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아차는 1998년 4월 15일 회사 정리 절차가 개시되었고 7월 15일 매각 제 1차 국제입찰공고에 이어 9월 23일까지 2차례에 걸쳐 입찰을 실시했으나 유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내의 자동차산업구조조정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기아차 처리의 시간단축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박을 통한 구조조정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비박의 향방에 따라 세계관도가 좌우되는 만큼 과당경쟁과

특혜 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3차 입찰에 회부했다. 그리고 1998년 10월 19일 드디어 현대자동차가 낙찰을 받게 이르렀다.

위중 (인문인)



"직접 뜯 털모자로 사랑 나눠요"

광주은행 여직원 700명 영아 일시보호소 위문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 여직원 700여명이 평소 은행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에 참여해 화제다. 송기진 행장과 광주은행 여직원 모

임인 '개나리회' 회원들은 27일 오전 광주 소재 동 소재 광주영아일시보호소를 방문 격려했다. 개나리회 회원들은 정성 들여 만든 털모자 200개를 KJB사랑샘터 35호

점 '광주영아일시보호소'와 21호점 '이화영아원'에 전달했다. 또한 나머지 400여개 털모자는 아프리카의 영유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계획하는 것이 저축이나 보험 등 가계설계이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고, 유래없는 세계적 경기침체가 전망되면서 내년도 가계운영 자금에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산을 모으기 위한 저축이나, 위험보장과 노후준비를 위한 보험 상품에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보험은 저축, 노후준비, 위험보장 등 다양한 목적을 이루는데 적합한 상품인 만큼 어느해보다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2013년 세계 개편을 주목하자. 복지제도 등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세수를 증대 시키기 위해 내년에 비교세제 등이 대폭 개편될 예정이다. 국민들의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이었던 비교세 제도가 바뀌는 만큼 마지막 가입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잘 대처해야 한다. 특히 자녀명의의 비교세 통장이 가입되지 않은 가정에서는 연초에 서둘러 가입을 해 두어야 한다.

□ 고품화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 40대 이상 저축의 주목적이 교육자금에서 노후준비로 바뀌고 있다. 노후준비 부족은 이미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언제까지 일지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계획을 세우는 게 불가능한 자금이 바로 노후자금이다. 최근 농촌지역에 농업인의 연금가입이 폭증하고 있는 배경도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아직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 해야 한다.

□ 위험보장은 실속형 보험으로 ...

2013년 보험 가입은 이렇게...

- 절세형 연금과 실속형 보장보험으로 -

소득이 늘지 않은 만큼 많은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가정이 늘고 있다. 소득이 줄고 지출할 데가 늘면 당연히 여러 비용 등을 아끼고 줄여야 한다. 지금까지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보험료 부담은 낮고, 보장은 한 부분에 집중된 상품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이런 부분형 실속보험을 찾아 꼭 필요한 안, 병원비, 재해 등의 위험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세가지 큰 방향에 걸맞는

가입목적	저축(자산증식)	노후준비	위험보장
추천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NH드림저축보험 NH저축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신을 위한 NH연금보험 연금저축NH세테크연금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NH재해보험 NH암보험 NH정기보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 목돈 인출 가능 여유자금 추가 납입가능 중도인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당이자 추가 수령 비과세 중도인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렴한 보험료 만기 일부 환급 폭넓은 보장

구체적인 보험 상품별로 잘 파악하여 소득규모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 NH농협생명 전남총국(총국장 : 김홍주)

에 따르면... 1. 우선 자산증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저축보험을 추천한다.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며 농협생명의 일부 상품은 연금전환기능이 있어 현재 자산증식을 노후보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납입기능을, 반대의 경우에는 납입기간 내 중도인출 기능을 이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노후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고객에게는 농협생명의 연금보험을 강력히 추천한다. 농협생명의 연금보험은 국내 유일 유배당 상품으로 확정된 이자가 배당이자까지 수령 가능하여 타사대비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가 적용되거나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테크상품이므로 고객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위험보장을 목표로 한다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특히 농협생명의 재해보험과 갱신형 정기보험, 암보험은 1~2만원대 저렴한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고 특히,

농축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가입이 용이하며 여기에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여 돌려드리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은 매우 적다.

□ 대부분 1~2년안에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시작했다면 최소한 3~5년 이상은 참고 견디어 내야 비로소 목돈이 되고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주식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렌버핏마저도 본인의 주식투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당장 얼마의 이익을 쫓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내심에 대한 하나님의 댓가' 라고 표현하고 있다.

어느해 보다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는 2013년, 절세형 연금과 실속형 보장보험은 지역 농축협의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농축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가입이 용이하며 여기에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여 돌려드리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은 매우 적다.

□ 대부분 1~2년안에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시작했다면 최소한 3~5년 이상은 참고 견디어 내야 비로소 목돈이 되고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주식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렌버핏마저도 본인의 주식투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당장 얼마의 이익을 쫓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내심에 대한 하나님의 댓가' 라고 표현하고 있다.



당신께 필요한 혜택을 골라 모은 NH생명보험